



가)의 이름 부르기나 나)의 정치적 올바름의 공통점은 바로 다)의 ㄱ을 모두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가)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다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우리가 '즉, '이름'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물 혹은 사람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의 '명명 행위'는 ㄱ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나)의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의 표현과 용어의 사용, 즉 언어에서의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이다. 나)는 언어에서 드러나는 차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을 전제하는 언어의 사용이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두가지 입장 모두 언어가 사고의 전제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 듯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남편을 잃은 여자를 '김씨의 미망인 000'이라고 부를 때 이는 000씨가 김씨에 종속되어 있다고 전제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망인'이라는 단어에는 여성은 남편을 따라 죽어야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가부장적인 뜻을 숨기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는 '고 김씨의 부인 000'이나 '000여사'등이 있다. '김씨의 부인'이라는 표현도 종속 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긴하지만 '000의 남편'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니 성차별적이라고 보긴 힘들다.

차별적 언어를 가치중립적 언어로 바꾸려는 노력인 '정치적 올바름'은 언어를 통해 생기는 편협된 사고나 선입견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공존한다. 정치적 올바름은 다)의 ㄴ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차별인식은 차별적 언어를 만들어 냈으며 언어를 순화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 즉 언어가 달라진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차별인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도축업자들을 양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고려에서 평범한 사람을 일컫던 '백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은 오히려 양민들은 더이상 백정으로 부르지 않고 도축업자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되었다.